-대한치과의사협회지 : Vol.28, No.8, 1990-

연재V

韓半島人의 口腔狀態와 口腔醫學
<現代齒科醫術의 流入以前까지>

奇昌德 齒科醫院 院長
가톨릭醫科大學 外來敎授
醫學博士 奇 昌 德

II. 高麗時代의 口腔醫學에 對한 考察

國初의 太祖는 唐의 傳統을 받은 醫學에 外科的 知識이 發達되었던 古代印度醫學이 들어 있는 經典과 呪經을 併用한 新羅醫學을 그대로 受容하면서 護國佛敎의 思想에 따른 佛敎의 隆盛과 함께 받아들임은 不可避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太祖는 卽位 初부터 八關會를 設置하여 王師의 禮로서 名僧들을 맞아들이고[1] 訓要十條 그 첫條에 "우리 國家의 大業은 반드시 諸佛護衛의 힘에 依資한 것이다 그러므로 禪敎寺院를 創設하고…"[2]라고 護國佛敎를 第1條에 내세우고 佛道의 慈悲的 本能에 依하여 東西 大悲院[3]을 經營하게 된 것이라거나, 또는 外敵의 防備와 崇佛의 思想이 結合되어 前後 2回에 걸쳐 大藏經의 彫刻을 完成[4]한 것등 高麗는 佛敎를 國敎로써 國家의 護衛과 安泰를 爲한 精神的 主軸으로 삼아 왔으며 그안에 民衆의 苦痛인 疾病과 貧困에서 벗어나게 하기 爲하여 佛力에 依한 佛典의 讀經과 함께 醫經의 讀誦과 僧醫의 役割도 컸다.

高麗時代에 있어서 衆生의 疾病을 治療하는 象徵的 存在는 藥師瑠璃光如來 즉 藥師佛(大醫王)로서 이는 身體的 病苦뿐이 아니고 光明普昭, 隨意成辯, 施無盡物, 安立大乘, 具戒淸淨, 諸根具足, 除病安樂, 轉女得佛, 安立正見, 除難解脫, 飽食安樂, 美衣滿足, 등 12가지 誓願[5]을 가지고 있어 疫疾의 流行, 疾病 및 賊兵의 退治, 王室의 病苦등에 王이 藥師院[6]에 幸次하신다거나 宮中에 藥師法度[7]를 마련 하기도 하였고 또는 寺刹이나 帝釋院의 佛殿에서 讀經을 하는 일도 많았다[8]. 한편 釋迦의 大慈大悲精神의 具顯을 앞세운 佛家의 傳統的인 治療法을 익힌 僧醫도 많아 宮中이나 貴族에게 施術한 僧 福山[9], 贊成事 趙簡의 瘧疽를 手術한 僧醫[10], 僧 嚞仙[11]등에 關한 記錄들이 보인다.

佛敎의 窮極的인 理念이 醫學만은 아니어서 僧醫들은 藥物이나 手術등 醫學的 治療手段보다 佛菩薩의 加被로 祈願하고 醫經의 讀誦이나 呪經에 依한 疾病 退治가 더욱 普遍化 되었던 것 같다[12]. 高麗時代의 醫經으로는 高宗(AD. 1236)때 刊行된 大藏經目錄중에 編入되어 있는 印度系의 醫方으로 먼저 魏, 晋때로부터 隋, 唐에 이르기까지 譯述된 方書로 <佛說呪時病經> 1卷, <佛說呪齒經> 1卷, <佛說佛醫經> 1卷, <除一切疾病陀羅尼經> 1卷, <佛說呪小兒經> 1卷, <佛說呪目經> 1卷, <療痔病經> 1卷, <能除一切眼疾病陀羅尼經> 1卷등이 있고, 다음 宋나라 때에 譯述된 方書로는 <治禪病祕要經> 上, 下 2卷, <救療小兒病經> 1卷, <迦葉仙人說醫女人經> 1卷, <

醫喩經> 1卷등이 있다[13].

이들 佛經이나 醫經중에는 口腔疾患의 治療를 付託하는 <佛說呪齒經>과 <療痔病經>도 있고 別途의 佛經중에 齒科와 關聯이 있는 것들도 많다. 즉 <大毘婆沙論> 卷177과 <修行道地經> 卷1에 齒骨(齒牙)은 32개, 全身의 骨의 數는 103개라 하였고, <肉身觀章包經>에서는 齒牙와 齒根骨(齒槽骨)을 明確히 區分하고 있다. 이밖에 齒科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正法念經>, <解脫道論>, <寶積經>, <胞胎經>, <大集經>, <十誦律>, <僧祇律>, <毘奈俚雜事>등에 部分的인 齒科關係 內容이 收錄되어 있다고 한다[14].

太祖가 十條訓要에 "八關은 하늘의 神靈과 五嶽 및 名山 大川의 龍神을 섬기는 것이라."[15]라고 한것은 太祖 7年에 開京에 外帝釋院, 九耀堂, 神衆院을 建立하고[16] 그후 福源觀, 大淸觀을 세우고 淨事色을 設置[17] 한 것에 이어지는 道敎的인 國家行事 즉 祈雨, 祈晴, 祈雪, 風神祭, 雷神祭, 解恠祭, 蝗蟲의 祈禳[18] 등과 瘟疫, 衆疾의 救病을 爲해 神靈과 龍神을 섬기라는 民生安定을 爲한 訓要임을 理解할 수 있다.

道敎는 本來 人間의 不老長生이 目的이여서 辟穀, 導引, 按摩, 調氣, 服食, 養精, 房中祕術등 道家方術이 保養의 方法[19]임으로 儒學者들이 自身의 健康과 疾病治療에 利用한 것으로 中國의 醫書에는 일찌기 論法이 記錄되어 있다.

口腔領域에는 導引法들이 揭載되어 있어 外臺祕要에는 叩齒法과 琢齒法이 실려 있고[20] 千金方의 揩齒法과 叩齒法[21]은 醫方類聚에도 轉載되어 있다[22].

高麗時代의 佛敎나 儒敎가 宮內나 富裕層의 生活을 支配하고 있었으나 그 裏面에는 巫覡信仰도 이들 生活에 깊이 關與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國巫堂이나 別例祈恩都監의 設置[23]는 國家的인 祈禱의 行事를 爲한 것으로 高麗圖經에 "高麗사람들은 本來 鬼神을 畏信하고 陰陽을 抱忌하여 病에 藥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呪咀 壓勝을 알 뿐이다."[24]라는 神祠에 祈禱하는 모습을 그린 記錄이나 贊成事 晋寧府院君 姜融의 妹가 巫堂이 된 記錄[25]으로 充分히 알 수 있다.

記錄에는 없지만 一般民衆이 믿고있던 疾病의 槪念이 精靈이나 惡魔의 所行으로 보고 있던 當時로서는 口腔領域에서도 于先 손쉬운 民間藥을 써 보고 醫經의 呪誦을 하고 廟社 神祠 佛寺등에서의 祭祀나 祈禱을 올렸을 것이다. 그래도 效驗이 없을 境遇는 巫堂의 巫術的療法등이 民衆生活의 底邊을 支配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以上과 같이 高麗時代 역시 口腔醫學이 專門化를 이루지 못하고 全體醫學의 一部에 包含되어 있었음으로 部分的인 記錄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 記錄에서 그 當時의 口腔領域의 疾病에 對한 槪念과 그 對策 또는 庶民들의 口腔衛生이나 齒牙에 對한 認識度등을 考察해 보았다.

東西洋을 莫論하고 이 時代의 사람들은 이(齒牙)가 아픈 것을 齒蟲의 장난으로 믿어 왔다. 그래서 齒痛이 甚할때는 이벌레(齒蟲)를 잡아 내던가 이벌레를 죽이는 方法을 생각하게 된것 같다.

高麗時代의 醫書에도 齒蟲을 잡아내는 方法이 들어 있다. <鄕藥救急方>의 藥方에 있는 齒蟲을 잡아내는 方法은 雀麥을 쓴바귀잎으로 싸서 酢에 담가두었다가 낮에 꺼내서 뜨겁게 구워 아픈 齒牙周邊에 대었다가 식으면 바꾸어 대곤 한다음 물을 담은 銅器에서 쓴바귀잎을 펼쳐보면 희고 누런벌레가 20~30마리 이상 나온다[26] 는 <千金方>과 <外臺備要>에도 있는 方法을 紹介하고 있다. 이는 西洋에서 Roman 帝國初 Glaudius 皇帝의 侍醫 Scrbonius Largus(西紀43年頃)가 Henbane씨를 태운 煙氣를 입안으로 漏斗를 通해 들어 가게하고 溫水로 입을 헹구면 때로는 이벌레가 나온다[27].는 方法을 紹介한 以後 中世期까지 믿어 왔던 것과 類似한 實際로 齒蟲을 確認할 수 있다는 方法의 記錄이다.

또 <鄕藥救急方>에 실려 있는 <千金方>, <外臺備要>, <聖惠方>의 것과 같은 송진(松脂>을 뾰죽하게 깎아서 구멍 안에 넣으면 벌레가 나온다[28]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醫心方(日本 AD.984)의 治齲齒痛方 第58 醫門方 引用 處方과도 같은 것이다[29]. 이 方法은 송진(松脂)으로 窩洞을 充塡하는 것과 같은 表現이나 齲齒蟲이 나온다고 했으니 이 方法도 역시 驅蟲療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와 類似한 것이 우리 固有의 鄕方인 <鄕藥簡易方>에도 있다. 이는 소나무나 측백나무 또는 회화나무의 가지를 뜨겁게 구어서 아픈 이의 구멍에 넣어 벌레를 잡는다는 方法[30]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驅蟲法이 紹介되고 있음은 當時 齒痛이 이벌레로 因해 생긴다는 太古때부터 내려오는 漠然한 原因說을 充分히 證明하는 原因除去의 信賴性있는 方法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以上과 같이 이벌레를 잡아 齒痛에서 벗어나려는 方法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中國, 日本, 西洋에서도 다 같이 많이 使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呪文에 依한 齒痛을 일으키는 齒蟲의 驅除法이 東西洋에 거의 같은 內容으로 記錄되어 있다. 西洋에서는 古代 Babylonia(BC. 1800)시대에 "이벌레(齒蟲) 쫓는 呪文"(tooth-worm conjuration)[31]을 粘土板에 楔形文字로 天地創造說과 같은 形式으로 이벌레의 起原을 證明하고 齒牙에 들어 있는 이벌레를 쫓아 달라는 呪文을 기록한것이 新 Babylonia(BC. 550)때의 複寫板으로 傳해지고 있다. 즉 Anu (男子神)가 하늘을 創造하고, 하늘이 땅을 創造하고, 땅은 河川을 創造하고, 河川은 도랑을 創造하고, 도랑은 늪을 創造하고, 늪은 벌레를 만들었을때 벌레는 Shamash에 가서 울었다. Ea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當身은 나에게 무엇을 먹이로 주겠읍니까?" "나는 너에게 잘 익은 無花果 한개를 주마, 살구와 사과의 즙을 주마" "잘 익은 無花果가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살구와 사과즙은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이(齒牙)와 이 사이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齒牙)의 피를 빨아 마시고 싶읍니다, 잇몸안의 齒根을 갉아먹고 싶읍니다, 門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 있을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 벌레야! Ea가 너를 그 힘센 주먹으로 때려 부술것이다"라는 呪文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高宗때 刊行한 앞에서 말한 八萬大藏經의 佛說呪齒經[32]과 陀羅尼雜集 第5卷의 呪齒痛陀羅尼[33]가 있다. 이들이 譯述된 時代로 보아 統一新羅以前부터 佛徒들에 依하여 齒痛에 즐겨 呪誦되던 呪文으로 짐작된다. 즉 "南無佛, 南無法, 南無比丘僧, 南無舍利佛, 大目揵連比丘, 南無覺意名聞邊의 北쪽揵陀摩呵衍山에 살고 있는 羞吼無라는 벌레가 至今 아무개씨의 齒牙에 머물고 있으니 당장 使者를 보내서 敢히 齒牙와 齒根을 파 먹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齒牙와 齒根周邊의 벌레는 卽時 그릇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鳩羅勒蟻와 같이 머리를 일곱쪽으로 부수겠으니 부디 呪文을 들으시고 南無佛은 呪誦대로 우리의 願에 따라 주소서"라는 Babylonia의 "이벌레를 쫓는 呪文"보다도 具體的인 內容이 表現되고 있다. 즉 佛力이 能히 이벌레는 쫓아 주리라고 믿어온 高麗時代 사람들은 이 呪文을 佛殿에서 精誠것 呪誦했을 것이다.

입이 헐었다거나 齒牙가 몹시 아플때 傷處나 아픈곳에 直接 藥을 쓸 수 없을 境遇에 슬기롭게 治療하는 方法이 記錄되어 있다. 즉 어린 아이가 口瘡을 앓을때 南星과 酢을 갈아서 다리(脚)에 붙였다 씻어 버린다[34]거나 吳茱萸를 볶아 酢에 개서 다리에 붙였다 씻어내는[35] <鄕藥簡易方>에 있는 우리 固有의 方法이다. 또 다른 한가지 方法은 齒牙가 아플때 붉은 껍질을 벗긴 무씨를 사람의 젖과 섞어 아픈 齒牙의 反對편 코안에 조금씩 넣으면 낫는다[36]는 方法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高麗時代 사람들은 어느 程度의 效果를 얻었는지는 모르나 로마時代의 Plinius Secundus(23-79)도 담쟁이덩굴의 液汁을 酢와 소금으로 개서 아픈 齒牙의 반대편 코(鼻)안에 넣는方法[37]을 記錄하고 있다. 材料는 달라도 方法이 같은 이 治療法이 古代 東西洋의 醫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손쉽게 施術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庶民들간에 널리 施術되고 있었음이 아닌가 한다.

庶民들의 口腔衛生을 爲해서는 소금이 많이 쓰여 졌으리라 推測된다. 養齒法으로 唯一하게 남아 있는 <鄕藥救急方>에 紹介된 주염나무와 소금을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밤마다 이

를 닦으라[38]는 方法이 한 首있다. 이 方法은 <直指方>에 있는 皂莢散 즉 風齒로 因해 動搖가 甚한 齒牙의 治療劑와 같은 것으로 한 달이면 齒牙가 튼튼해 진다고 한 養齒劑이나 實際의 效果는 몰라도 쉬운 方法임으로 많이 愛用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이 方法 역시 소금이 든 齒藥을 손가락으로 닦았을 것이고 重症이 아닌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口腔衛生에는 效果도 있었으리라 짐작 된다. <直指方>에서는 揩齒라 하여 이를 문지른다는 글자로 이를 닦는것을 表現하고 있다. 唐때의 것으로 傳해오는 敦煌壁畫(寫眞-1)에 손가락으로 揩齒하는 그림이 있다. 高麗때의 庶民들도 日常 生活에서는 앞에서 말 한바와 같이 손가락으로 이를 닦았으리라고 거의 斷定하고 싶다. 그러나 高麗時代는 佛敎가 盛況하고 있었으므로 當時의 文獻에 나오는 齒木(房楊枝)이 高麗社會에서도 一部에서나마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僧房이나 上流層의 家庭에서는 使用했을 可能性이 높다[39]. 當時 宋나라에서 칫솔의 使用을 본 記錄이 <正法眼藏>에 있고[40] 또 中國의 養生書에는 刷牙子라는 이름이 보인다[41]. 이를 證明하듯이 北京故宮博物院의 保和殿에는 遼應歷9年(959) 墓葬에서 出土된 齒制子의 자루가 展示되어있다[42]. 高麗時代는 宋의 모든것이 여러 가지 길을 通하여 輸入되던 때인만큼 칫솔도 輸入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朝鮮朝 洪萬選(1643~1715)는 <山林經濟>에 刷牙子(칫솔)이야기[43]를 記錄하고 있으나 高麗때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

<三和子鄕藥方>에는 입에서 냄새가 甚할 때 枸杞달인 물을 먹고 입안을 헹구면 좋다[44]고 되어 있다. 이 方法은 <東坡養生集>에 粗茶로 입을 헹구면 齲蝕도 豫防할 수 있다[45]는 것과 目的이 약간 다르나 養齒하는 方法은 같다고 본다. 특히 요사이 國內에서 "枸杞茶"를 奬勵하고 있는 것은 先人들이 즐겨 하시던 齒牙 健康을 爲한 양치질과 서로 通하는 點이 있어 成果는 알 수 없으나 歡迎한다(寫眞-2).

우리나라 歷史上 처음 보이는 齒牙 傷害補償에 關한 記錄이 있다[46]. 즉 高麗史 卷84 志 卷第38 刑法1 大惡에 "堂兄姊를 毆打해서 齒牙를 부러뜨리면(折齒) 徒(重勞動刑) 3年이고, 媤麻의 兄妹를 毆打하여 折齒 1개때는 徒 1年반이고, 2齒以上이면 2年이다. 小功의 兄妹를 毆打하여 折齒 1개하면 徒 1年이고 2齒以上이

<사진 1> 含嗽圖 丸山 茂 提供

<사진 2> 揩齒圖 丸山 茂 提供

면 2年반이다. 兄의 妻나 男便의 弟妹를 毆打하여 1개를 折齒하면 徒 1年반이고, 折齒 2개 以上이면 2年이다. 男便이 妻를 毆打하여 折齒 1개하면 杖 90이고 2齒以上인 境遇는 杖 100이며 妻가 妾을 毆打해서 이를 부러뜨리면 같은 刑을 받는다."라는 本族, 外族, 妻族間의 折齒傷害에 대한 刑罰이 있다. 이는 親戚間의 暴行行爲보다 齒牙를 부러뜨렸다는 罪價에 對한 刑罰로 齒牙에 대한 認識度를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

他人에 對해서는 仁宗 12年(1134)에 있은 判決文에 "사람을 때려 이(齒牙)를 부러뜨린 사람은 銅을 徵收하여 被害받아 傷한 者에게 주어라"라고 한 記錄이 있다[47]. 聖書에는 남의 齒牙를 뽑히게 한 사람은 대신 自己의 齒牙를 뽑아야 한다는 뜻의 句節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리면 그 이대신에 종에게 自由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48]는 句節이 있어 時代의 差異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刑罰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罰則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高麗時代의 口腔疾患에 關한 治療藥方과 方法 또는 齒牙에 對한 認識등을 살펴 보았다. 治療藥方은 거의가 中國의 醫書에 있는 것이나 調製가 簡便하고 國內 어디서나 求하기 쉬운 藥材로 施術이 어렵지 않은 方法들을 골라 가장 效果的인 것만을 轉載한것 같다. 그러나 當時 高麗에 이미 輸入되고 있었고 敎材로 使用하던 <素問>이나 <甲乙經>과 뒤에 治療藥方들을 參考한 醫書 <千金方>에는 鍼灸術이 子細히 記錄되어 있는데 民間에서 가장 많이 施術되고 있었으리라 믿은 이 鍼灸法에 關해서는 記錄을 찾아 볼 수 없다.

參 考 文 獻

1.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1, 太祖2年 11月 始設八關會 御儀鳳樓觀之 歲以爲常.
2. 高麗史 卷2, 世家 卷第2, 太祖2, 十條訓要 其一曰 我國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3. 靖宗(1035 年頃) 以前에 세운 것으로 推測됨(靖宗 2年 11月 修東大悲院 以處飢寒疾無所歸者衣食之) 高麗史節要 卷四 15.
4. 高麗史 卷24, 世家 卷第24, 高宗3, 高宗 38年 8月條에 幸城書門外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毁於壬辰蒙兵 王 與群臣 更願 立都監 十六年而功畢.
5. 孫弘烈 : <信仰과 醫療>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硏究, 修西院, p.154, 1988.
6. 藥師院(殿)의 設立年度는 알 수 없으나 高麗史 卷13, 世家 卷第13, 睿宗2, 睿宗 6年 8月 太史奏 "先朝所創天壽寺 地勢不利 請毁藥師院 移之."로 보아 오래전에 設立된 것 같다.
7. 高麗史중에는 國家의 安泰와 王室의 繁榮을 빌기 爲해 消災道場, 般若道場, 仁王道場, 天帝釋道場, 佛頂道場, 百座會, 藥師道場등을 闕내에서 베풀기도 하였다. 高麗史 卷45, 世家 卷第45, 恭護王1에 "王曰 然 予嘗於中宮之病 說藥師法席 其夜 夢見一僧 病卽癒 佛豈虛哉."라는 記錄이 있다.
8. 王이 자주 擧動한 寺刹은 奉恩寺, 外帝釋院, 佛恩寺, 興王士, 開國寺, 法王寺, 王輪寺, 普濟寺, 龜山寺등이 보인다.
9. 高麗史 卷36, 世家 卷36, 忠惠王 2年 5月條에 癸未夜 黃氏 邀王宴其家 王 命醫僧福山 治黃氏淋疾 王 常餌熱藥 素幸婦人 多有是疾.
10. 高麗史 卷106, 烈傳 卷第16, 趙簡條, 簡旣老 瘇疽肩頃幾不辯 有醫僧曰 疽根於骨 骨當半朽 不刮去 不利 唯恐不能忍 簡曰 死等耳 第試之 乃以利刃剚之 骨果朽 刮之傳藥 絕而瞑者二日….
11. 上揭書, 忠惠王 4年 4月條에 王 下僧嵩仙獄 嵩仙 善琴畫醫術 赤解漢蒙語 王 敬重….
12. 申貞均 : <佛敎醫學의 歷史的考察>, 佛敎와 醫學,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p.22, 1983.
13. 金斗鍾 : <印度醫學의 影響> 韓國醫學史, 探求堂, p.127, 1966., 三木 榮 : <印度醫學> 朝鮮醫學史及疾病史, 醫齒藥出版社, p.39, 1972.
14. 李漢水 : <佛典과 齒科醫學> 大韓齒科醫

史學會誌, 5(1) p.19 1984.
15. 高麗史 卷2, 世家 卷第2, 太祖2. 十條訓要其六曰…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16.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1. 太祖7年條에 是歲 創外帝釋院·九堂醮·神衆院.
17. 高麗史 卷77, 志 卷第31, 百官2. 諸司都監角色, 淨事色條, 高宗時 諸事未具久廢親醮至四十五年…,
18. 金庠基 : <其他行事>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出版社, p.795, 1985.
19. 孫弘烈 : <道敎와 醫療>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硏究, 修書院, p158, 1988.
20. 王 燾 : <齒痛方 十一首, 養生方導引法云>, 外臺祕要 卷22, 慶熙醫大圖書館所藏本 p.599,
21. 孫思邈 : <齒病 第6, 論條>, 備急千金要方 卷6下, 七竅病下, 自由出版社, p.121,
22. 醫方類聚 卷71, 齒門 1, 千金方 齒病, 東洋醫科大學筆寫本, p.2541, 1960.
23. 高麗史 卷77, 志 卷第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別例祈恩都監, 明宗八年 術僧致純言…中畧…宰相 皆曰可 遂置都監.
24. 徐兢 : 高麗圖經 第17卷 祠宇條, 聞高麗素畏鬼神 拘忌陰陽 病不服藥 雖父子之親 不相見 唯知呪咀 壓勝而已.
25. 高麗史 卷124, 列傳 卷第37, 鄭方吉 附 姜融傳, 融 忠宣時 拜內府令 妹爲坐 食松岳祠…,
26. 苦瓠葉三十枚 洗淨 取雀麥 長二寸 許廣一寸 厚五分 以苦瓠葉裹了作 五六十裹以陳酢漬之 至日中之 兩裹火中炮令熱納口中 齒外邊慰之 冷更易取銅器貯水中 解裹洗之 卽有蟲三分 老者黃色 少者白色 多則二三十枚 小則一二十枚 此一方甚驗. <鄕藥救急方>, <醫方類聚>, <千金方>, <備預百要方>.
27. W.Hoffmann-Axthelm : History of dentistry, Quuitessence Publishing Co.p.83, 1981
28. 取松脂銳如錐 納孔中 蟲綠松脂出差, <鄕藥救急方>, *松脂捏令 頭尖注蟲孔中 有蟲出卽效. <醫方類聚>, <衛生易簡方>, <備預百要方>.
29. 醫心方 卷第5, 齒齲齒痛方 第58, 醫門方 齒齲齒方 以松脂捻令頭尖 注孔中 蟲當出也.
30. 松, 柏, 槐枝 燒令熱柱 病齒孔須臾 蟲綠枝出, <鄕藥簡易方>, <鄕藥集成方>
31. W.Hoffmann-Axthelm : 上揭書, p.31.
32. 佛說呪齒經 : "南無佛 南無法 南無比丘僧 南無舍利佛 大目犍連比丘 南無覺意名聞邊北方 犍陀摩呵衍山 彼有蟲王 名羞吼無 在莫牙齒中止 今當遣使 無敢食某牙及牙根中牙根中牙邊蟲 不卽下器中 頭破作七分 如鳩羅勒蟻 梵天勒是呪 南無佛 令我所呪 皆從如願."東晋竺曇無蘭譯, 高麗大藏經, 卷十三, 東國大學校 p.1152, 1960.
33. 呪齒痛陀羅尼 : 上揭 佛說呪齒經의 끝에 "…淨水含呪一遍 吐水器中呪七遍止."이 添加되어 있음. 陀羅尼雜集 第五卷
34. 南星酢磨 塗脚 心效洗法. <鄕藥簡易方>, <鄕藥集成方>.
35. 吳茱萸炒赤 酢調 塗脚 心效洗法. <鄕藥簡易方>, <鄕藥集成方>.
36. 以蘿蔔子(唐菁實) 二七粒. 去赤皮細研 和人乳汁 若左牙痛 卽右鼻中點 如右牙痛 卽左鼻中 點之立效. <鄕藥救急方>. *蘿蔔子二七粒 去赤皮 細研以人乳和 左邊牙痛 卽於右鼻中點少許 如右邊牙痛 卽左邊鼻中點之 立效. <鄕藥集成方>, <聖惠方>, <醫方類聚>, <備預百要方>.
37. W.Hoffmann-Axthelm : 上揭書 p.84.
38. 皂莢兩挺 鹽半兩 同燒令 通赤細研 夜夜 用揩齒 一月後有動者 齒及齦齒竝差 其齒牢固. <鄕藥救急方>, <鄕藥集成方>, <聖濟總錄>. *長肥皂莢二挺 白鹽半兩 右二件 同燒赤 研細常擦. <醫方類聚>, <直指方>, <備預百要方>.
39. 裵珖植 : <齒木, 佛敎典籍中 齒牙에 關한 이야기>, 大韓齒科醫史學會誌, 6(1), 1985.
40. 道元禪師 : 正法眼藏 中卷, 岩波書店, 225, 1953.

41. 周守中："早起不可用刷牙者 恐根腐兼牙疎易搖 久之患牙痛…"養生類纂,
42. <晋隨唐時代> 中國口腔醫學發展簡史, 日本齒科醫史學會會誌 8(3), p13, 1981.
43. 洪萬選："刷牙子早起不可用 刷牙多是馬尾馬尾能腐齒根" 攝生, 保身體, 山林經濟 卷1, 洪萬選이 宋代의 周守中 編撰 養生類纂에 있는 "早起不可用刷牙子"라는 句節을 읽고 쓴 말일지도 모른다.
44. 枸杞煮汁 服之. <三和子鄕藥方>, <鄕藥集成方>.
45. 周大成：<宋代>, 中國口腔醫學發展簡史, 日本齒科醫史學會會誌, 8(3), p.15, 1981.
46. 高麗史 卷83, 志 卷題38, 刑法 1, 大惡 "…毆堂兄妹者…折齒以上 徒三年……, 毆媤麻兄妹…折一齒以上 徒一年半 二齒以上 徒二年……, 毆小功兄妹…折齒 徒一年 折二齒以上 徒二年半…, 毆兄之妻 及夫之弟妹 折一齒以上 一年半 二齒以上 徒二年……, 夫毆傷妻…折一齒以上 杖九十 二齒以上 杖一百…以妻毆妾同.…"
47. 上揭書, 殺傷, 仁宗12年 判 毆人折齒者 徵銅 與被傷人
48. 舊約聖書, 출애굽기 21：23－27, 그러나 다른 事故가 생겨 목숨을 아샀으면 제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自己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대신 종에게 自由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다음호에는 "高麗時代의 食生活과 口腔狀態에 대하여 기술함>